

반갑다 축구야! 야구야!

K-리그 전남-포항 맞대결 9개월 장정 돌입

■ K리그 2008 전남·광주 3월 경기 일정

날짜	대전	장소	시간
3월8일	포항:전남	포항 스타디움	오후 3시
3월8일	광주:성남	광주 월드컵	오후 3시
3월8일	광주:경남	광주 월드컵	오후 3시
3월8일	인천:전남	문화 월드컵	오후 3시
3월8일	부산:광주	부산 월드컵	오후 7시
3월8일	전남:대전	광양 전용	오후 3시30분

주말인 8일부터 긴 겨울잠을 끝난 K-리그와 프로야구가 녹색 그라운드에 첫 선을 보인다.

2008 삼성 하우젠 K-리그가 8일 지난해 FA컵 우승팀 전남 드래곤즈와 정규리그 우승팀 포항 스틸러스와의 맞대결을 시작으로 9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 프로야구 시범경기도 오늘부터 플레이 볼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는 전남은 원정경기에 나서 포항을 상대로 첫 승을 노린다. 전남의 새 사령탑 박항서 감독과 허정무호 황태자로 떠오른 '골 넣는 수비수' 꽈태희가 팬들에게 관심 거리다.

9일에는 광주 상무가 성남 일화를 흡으로 불러들여 탈꼴찌를 위한 필승 경기를 펼친다. 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나무석 단장의 주제로 승리기원제까지 지난 상무는 올 시즌 새로 가세한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 김용대를 비롯해 이정래, 장경진, 박종진, 최재수 등의 수준급 수비수들을

앞세우고 시즌 돌풍을 준비하고 있다. 프로야구 시범경기도 시작된다.

KIA타이거즈는 8일과 9일 대전 원정에 나서 한화와의 첫 시범 경기를 펼친다.

'V10'을 목표로 50여일 간의 전지훈련을 소화해 낸 선수들은 꽤 조의 컨디션으로 시즌 접경에 들어간다. 부상에서 회복중인 서제은도 컨디션 접경자 마운드에 오를 예정이라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새로 영입된 융병 리마, 밸데스와 4번 타자를 노리고 있는 우타 거포 김주형과 나지완의 활약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경기일정

날짜	홈팀:선다팀	장소	시간
3월8일	한화:KIA	대전	오후 1시
3월9일	한화:KIA	대전	오후 1시
3월11일	삼성:KIA	대구	오후 1시
3월12일	삼성:KIA	대구	오후 1시
3월13일	KIA:두산	광주	오후 1시
3월14일	KIA:두산	광주	오후 1시
3월15일	KIA:롯데	광주	오후 1시
3월16일	KIA:롯데	광주	오후 1시
3월18일	KIA:SK	광주	오후 1시
3월19일	KIA:SK	광주	오후 1시
3월20일	KIA:우리	광주	오후 1시
3월21일	KIA:우리	광주	오후 1시
3월22일	LG:KIA	잠실	오후 1시
3월23일	LG:KIA	잠실	오후 1시

월드컵 축구 남북대결 26일 상하이서 열린다

FIFA 규정 따라 태극기·애국가 사용

북한의 태극기, 애국가 사용 불가 판문으로 논란으로 빚었던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남북 대결이 결국 평양에서 열리지 못하고 '제3국 개최'로 결론이 났다.

대한축구협회는 7일 국제축구연맹(FIFA) 종재로 26일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예산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FIFA 규정에 따라 태극기와 애국가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축구협회는 오후 FIFA로부터 이런 종재안을 공식 통보받았다. FIFA가 양국 협회의사를 조율해 낸 중재안이어서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평양 개최시 태극기와 애국가를 FIFA기(旗)와 FIFA가(歌)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는 축구협회의 원칙론 사이에서 고민했던 FIFA가 접점을 제3국 개최에서 찾은 것이다.

남북 대결은 애초 평양에서 열리도록 일정이 조합되지만 북한이 태극기 계양과 애국가 연주를 허용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지난 달 5일과 26일 개성에서 진행된 남북대표단 실무협상이 잇따라 결렬돼 축구협회가 FIFA에 중재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국가, 국가 사용과 응원단 방문 등 경기 개최 전반의 문제는 FIFA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경기 시간과 경기장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태극기, 애국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해왔고 FIFA도 '국기와 국가 문제 등을 정치 논리가 아닌 축구논리로 풀겠다'는 입장장을 밝혔었다.

에인트호벤 이적설

이영표 "사실 무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프로골프협회장 재추대

이영표(31·토트넘 훗스퍼)가 친정팀인 PSV에인트호벤으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는 네덜란드 현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이영표 에이전트사인 린지센은 7일 보도 자료를 내고 "이영표가 에인트호벤으로 이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네덜란드 유력지 텔레흐라프는 이영표가 "에인트호벤으로 다시 돌아가서 뛰고 싶다"고 말한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한국 프로 골프 협회(KPGA)를 4년간 더 이끌게 됐다.

KPGA는 7일 송파구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2008년도 회원총회를 열고 박삼구 회장을 제13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준비 많이 했으니 기대해 달라"

최경주 유럽골프투어 출전 귀국

"몸 상태도 최상이고 준비도 많이 했다. 실망시키지 않겠다"

13일 제주 편克斯골프장에서 열릴 유럽프로골프투어 밸런타인챔피언십에 출전하는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7일 귀국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시카고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여정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입국장을 나선 최경주는 세계 랭킹 6위답게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오전 6시에 비행기에서 내린 최경주는 인근 호텔에서 잠깐 쉰 뒤 오전 10시30분부터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드립골프레인지에서 나이키골프가 마련한 클리닉에 참가했다. 최경주는 9일 제주도로 내려가 코스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00·KBS N SPORTS

▲2008 PGA PODS 챔피언십 3R(05:00·SBS스포츠·SBS골프)

▲WBC,IBF 타이틀 매치(11:00·MBC ESPN)

▲2008 프로야구 시범경기 <롯데:우리>(13:00·MBC ESPN)

▲07/08 V리그 남자부<삼성화재:상무>(14:30·KBS N SPORTS)

▲07/08 프로농구<KT:전자랜드>(14:50·XPORTS)

▲2008 프로야구 시범경기 <롯데:우리>(15:00·MBC ESPN)

▲07/08 V리그 남자부<삼성화재:상무>(14:30·KBS N SPORTS)

▲07/08 프로농구<KTF:전자랜드>(14:50·XPORTS)

▲07/08 잉글리시 FA컵 6라운드<맨체스터 Utd:포츠마스터>(21:30·MBC ESPN)

▲2008 K리그<수원:대전>(15:00·MBC ESPN)

▲07/08 여자프로농구 PO(4위:신한은행)(16:50·SBS스포츠)

▲07/08 잉글리시 FA컵 6라운드<맨체스터 브로:카디브시티>(23:00·MBC ESPN)

10일(월)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위건:아스날>(01:00·MBC ESPN)

▲07/08 잉글리시 FA컵 6라운드<브리스톨:웨스트溴위치>(03:00·MBC ESPN)

▲07/08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04:00·KBS N SPORTS>

'손민한 완벽투'...한국야구 출발 좋다

베이징올림픽 최종예선 1차전 남아공에 5-0 완승

한국 야구가 베이징올림픽을 향해 순조롭게 출발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은 7일 대만 타이중 인터콘티넨탈구장에서 벌어진 2008 베이징올림픽 최종예선 1차전에서 선발투수 손민한(롯데)의 호투 속에 약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5-0으로 물리쳤다.

첫 판에서 완승을 거둔 한국은 8일 저녁 7시30분 복병 호주와 2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1회초 선두타자 이종우(두산)이 끝맞는 공으로 출루한 뒤 2루 도루에 성공해 초반 득점기회를 만들었다.

2번 고영민(두산)은 2루땅볼로 물러났지만

만 '돌아온 해결사' 이승엽이 우중간 팬스를 직접 맞히는 2루타를 터뜨려 선취점을 뽑았다.

선발 손민한은 1, 2번 타자를 내야땅볼로 처리했으나 3번 필립스를 볼넷으로 내보낸 뒤 빌렌부르크에게 중전안타를 맞아 2사 1, 3루로 몰렸다. 그러나 5번 리벤베르크를 삼진으로 속아내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

손민한은 2회부터 끝이 풀린 듯 6회까지 퍼펙트로 처리하며 단 1명의 주자도 내보내지 않았다.

마운드의 안정 속에 한국은 3회초 추가점을 올렸다. 선두 고영민의 우전안타에 이어

이승엽은 내야플라이로 물러났지만 김동주

가 우중간 2루타로 1점을 보탠 뒤 이대호는 중전수 키를 넘어가는 2루타를 날려 3-0으로 앞섰다.

이후 매 이닝 출루하고도 추가 득점에 실패했던 한국은 8회초 김동주가 2루타, 이택근(우리)은 2루수 앞에서 뛰어오르는 행운의 안타를 만들어 4-0으로 달아났다. 승부가 기운 9회에는 2사 뒤 조인성(LG)과 이대호, 이진영(SK)의 연속 안타로 1점을 보탰다.

경기 내용은 완승이었지만 한국은 잔루를

11개나 기록할 만큼 결정타가 제 때 터지지

않아 공격력 강화가 최대 관건이 됐다.

반면 마운드에선 손민한이 6이닝 동안 삼진 7개를 뽑으며 1인타, 1볼넷, 무실점으로 막았고 투구수가 64개에 불과할 만큼 남아공 타자들을 압박하게 요리했다.

컨디션 점검과 등판한 김선우(두산)도 최고시속 146km의 빠른 볼을 앞세워 2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처리했고 마무리 유구민(LG)은 선두타자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무실점으로 경기를 매듭지었다.

지난 해 12월 아시아예선에서 6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던 이대호는 5타수 3안타로 활발한 타격을 보였고 김동주는 2루타 2개로 4

타수 2안타, 이택근은 3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손가락 부상에서 회복된 이승엽은 5타수 1안타, 1타점을 올렸다.

/연합뉴스



정민태 KIA 유니폼 입는다